



## KOSPI, 중요한 분기점 도달

### 1. KOSPI, 상승 과정에서 저항대 도달

- KOSPI 상승 과정에서 2,500~2,550pt 수준의 이전 고점대 저항 근접. 장기간 저항으로 작용한 가격대가 돌파 쉽지 않을 전망
- KOSPI를 비롯, S&P500, 상해종합지수 200일 이평선 돌파하는 등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개선되는 상황.
- KOSPI, 2,550pt 저항 돌파 시 중요한 변화로 이해. 돌파 실패해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접근 필요.

S&P500, 상해종합지수 증가와 200일 이평선 추이, 장기 하락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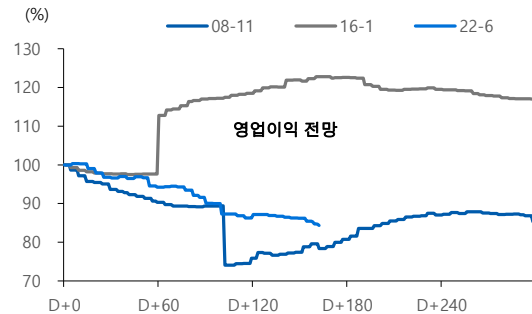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KOSPI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해석

-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약 16조원 누적 순매수 기록.
- 2008년 초 이후 외국인 장기 순매수 사례에서 주가 흐름은 상이하게 나타남. 외국인 순매수 규모보다 영업이익 전망치 흐름의 영향력이 큼.
- 최근 KOSPI 이익 전망치 하락 중이라 강한 상승은 어려움. 하락세 중단 시 본격 상승 가능성 높아질 전망.

2008년 초 이후 외국인 지속적 순매수 구간의 당해 영업 이익 전망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1. KOSPI, 상승 과정에서 저항대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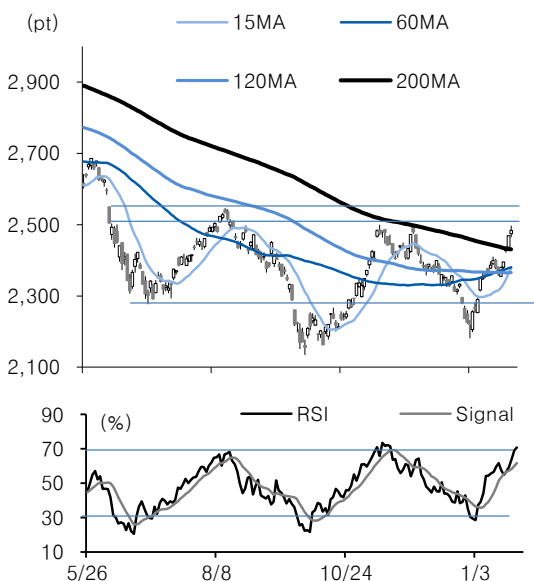
KOSPI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외국인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12월 초 고점대인 2,500p에 근접한 상황이다. 전주말 장 중에 상승 폭을 일부 줄였지만 아직까지 단기 상승 기조는 유효한 모습이다.

특히 KOSPI는 지난 주 상승 과정에서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고, S&P500지수와 상해종합지수 등 주요 글로벌 지수도 최근에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200일 이평선은 장기 추세의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이평선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2,500~2,550pt 수준에 위치한 저항 돌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RSI가 과매수권에 도달했고, 반년 가량 저항으로 작용한 가격대라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2,550pt 수준까지 돌파한다면 시장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KOSPI를 비롯 글로벌 주요 증시의 중기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가격대에서 단기 상승이 제한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므로 단기 조정 시 매수 시점을 찾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차트1] KOSPI일봉과 RSI, 최근 상승 과정에서 200일 이평선 돌파 후 이전 고점대 저항 근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S&P500, 상해종합지수 증가와 200일 이평선 추이, 장기 하락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 돌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KOSPI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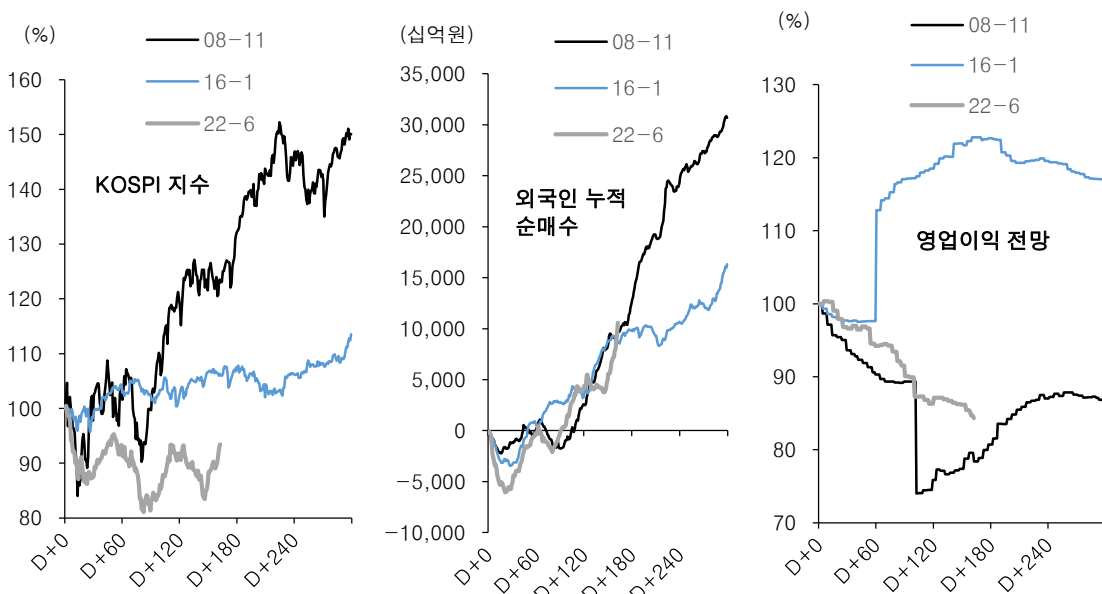
2022년 7월 초 이후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약 16조원이다. [차트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초 이후 외국인 장기 순매수 국면에서의 누적 순매수 추이는 2016년 1월 이후와 2008년 11월 이후의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8년 11월과 2016년 1월, 2022년 6월 이후의 KOSPI지수 흐름은 사뭇 다른 형태로 진행 중이다. 단순히 외국인 순매수 규모만으로 KOSPI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KOSPI의 방향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 건 영업이익 전망치의 흐름이다. [차트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중에 영업이익 전망치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2016년 중에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이익 전망치의 하락 조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KOSPI 기준 2,550pt 수준의 저항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3] 2008년 초 이후 외국인 지속적 순매수 구간의 KOSPI 지수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 당해 영업이익의 전망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